

예배 및 모임안내

2019-19호 2019년 05월 12일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주일학교 예배	주일 오후 1시15분	교육관 5번 교실
청년 기도모임	월 1회	교육관 7번 교실
말씀 나눔 모임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5번 교실
성경 읽기 모임	매 주일	교육관 5번 교실
구역 모임	월 1회(구역 별)	구역 별 결정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행복을 나누는 건강한 교회(삼하7:21~29)”

주일 예배 봉사위원

	05. 19	05. 26	06. 02
대 표 기 도	문정현 집사	유미경 집사	정용현 집사
성 경 봉 독	문정현 집사	유미경 집사	오한솔 자매
헌 금 위 원	유미경 집사	김효종 집사	김효종 집사
안 내 위 원	황희순 집사	황희순 집사	황희순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성경 읽기 -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우세요 (레23~27장, 대상1~15장)
2. 아버지 주일 - 부모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3. 여전도회 월례회 - 친교 후 월례회로 모입니다(5번 교실)
4. 말씀 나눔 - 다음 주일(19일) 본문은 골3:12~17입니다.
5. 라마단 (5월 6일부터 6월 4일) - 모슬렘인들을 위해 기도해주시시오.
6. 나눔의 시간 - 청년회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교우동정

생일	유미경 집사(18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화목하는 교회
3. 기도모임이 살아나고, 각 기관,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4. 김선택, 장보경 협력선교사(성진, 예린, 주 허트번, 헝가리) 사역을 위하여
5. 투병 중인 성도의 치유를 위해 - 김복자 권사, 이 현 형제의 치유를 위하여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http://www.brehanmin.de>

주일예배 Gottesdienst **아버이주일**

- *송 영 Chor 한민 성가대
- *기 원 Altargebet 정용현 안수집사
- *찬 송 Gemeindelied 576장 **다같이**
- *성시교독 Wechsellesung 교독문 98번 **다같이**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578장 **다같이**
- 기 도 Gebet 황희순 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잠 23 : 22- 26(구 p937) 황희순 집사
(Spürche 23:22-26)
- *찬 양 Lobelied 한민 성가대
- 설 교 Predigt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579장 **다같이**
- 현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314장(1, 2절)..... 문정현 집사
- 특별찬양 Soderlied 양동훈 형제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폐회찬송 Schlusslied 54장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한민 성가대

***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Bitte erheben Sie sich)**

성도의 교제 친교실

타샤 튜더의 생활 방식

미국 동화작가요, 삽화가인 Tasha Tudor(1915~2008년)는 2008년 6월 18일 93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큰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며, 19세기 방식으로 직접 천을 짜고, 양초를 만들고, 양젖으로 버터를 만들면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나는 요즘도 골동품 식기를 생활에서 사용한다. 상자에 넣어두고 못 보느니 쓰다가 깨어지는 편이 나오니까. 내가 1830년대 드레스를 입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의상 수집가들이 보면 하얗게 질릴 일이다. 하지만 왜 멋진 걸 가지고 있으면서 즐기지 않는담 인생은 짧으니 오롯이 즐겨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옷은 일주일에 두 번씩 입으면서, 큰 마음 먹고 구입한 비싼 옷은 아까워하면서 1년에 2번도 꺼내 입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귀중한 것일수록 더 자주 바라보고, 만져보고, 꺼내서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과 햇볕, 눈과 귀, 마음과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을 즐기는 지혜는 기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인은 기도가 너무 거룩해 보여서 먼발치에서 그저 바라보기만 합니다. 응접세트처럼 장식장에 넣어둡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많이 외웁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과 중요성을 배웁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도 듣습니다. 가끔 기도 응답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그 기도를 고이 벽장 속에 넣어두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 번 꺼내 쓰다가 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고, 어디서나 즐기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기도 / 오규훈 목사
(장신대학교 목회상담학 교수)

* 시민 생활의 자유는 가치 있고 종교의 자유는 귀하지만, 영적 자유는 지극히 값진 보배이다. - Charles H. Spurgeon -